

무명용사 조문종, 70년만에 호국영웅으로 재탄생

순천 출신 육탄 특공대원...6·25 때 전차 11대 파괴 등 혁혁한 전공 19세에 전사...자료 미비·정부 무관심에 잊혀졌다 국가유공자 지정

6·25 전쟁 참전 용사로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도 이제껏 무명용사로 묻혀져 온 순천 출신 육탄 특공대원 조문종(84)씨가 70여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호국영웅으로 재탄생했다.

순천시 주암면 출생인 고(故) 조문종(84)씨는 1949년 8월 같은 면에 사는 조달진(1928년 생)과 18세의 어린 나이로 자원 입대했다. 6·25 전쟁에 제6사단 19연대 3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조문종 일병은 그해 6월 28일 흥천 말고개 방면으로 진격해 오는 북한군 전차(자주포)를 격파하기 위해 육탄 특공대장 조달진 일병이 지휘하는 11명으로 구성된 특공대에 지원해 박격포탄과 수류탄, 화염병 등을 이용해 적 전차 11대를 파괴하는 전공을 세우 조달진과 함께 병장으로 2계급 특진했다.

또 같은 해 8월 7명의 육탄 용사로 문경지구 전

투에서 적 전차를 격파하는 전공을 세웠으나 조문종은 애석하게도 이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와 같은 혁혁한 전공은 당시 전쟁 중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료 미비와 무관심, 19세의 어린 나이로 전사한 데 따른 유족의 정보 부재 등으로 70여년 동안 무명용사로 묻혀왔다.

하지만 잊혀져 가던 조문종 용사의 유공은 호국영웅 조달진 소위 추모위원회 안경 회장과 조문종의 유일한 유족인 조카 조순명(84·순천시 주암면·형의 아들) 씨의 사위 한영태(61) 씨 등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전공 사실 확인과 국가유공자 지정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이들은 '1950년 7월 23일 경상북도 문경 전투에서 사망했다'고 기록된 조문종 이등상사의 제적부와 보병제19연대 발행의 육탄전사 조문종 등의 기록과 흥천 말고개 전투 후 미군 중군기가

가 촬영한 사진 등도 수집했다. 또 안 회장과 한 씨, 지역예비군대장 등은 전남동부지역 보훈처의 도움을 받아 현충원과 육군본부 등을 방문해 올해 초 육군본부에서 군번을 찾아냈으며 이를 통해 병적기록부도 갱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청와대를 비롯해 국방부 등 정부 관계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 지난 3월 28일 마침내 국가유공자 지정을 끌어냈다.

이와 함께 화랑무공훈장 수여와 실질적 명예, 전공을 회복시켜 줄 것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요청해 오는 10월 국회 국방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안경 회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기관, 언론계 등의 관심으로 긍정적 답변을 받아 심사 통과를 확인한다"며 "훈장이 수여되면 성대한 수여식을 가질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족 대표 한영태 씨는 "이제야 그간의 고생과 한이 조금은 풀린 것 같다"며 "훈장 수여 등이 이뤄져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조국을 위해 산화한 그분의 애국심과 충정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순천 출신 특공대원들이 북한군 전차를 격파 후 찍은 기념 사진, 앞줄 맨 오른쪽이 조달진 용사, 검은색 점선 안이 조문종 용사.

구례군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30만원→50만원으로 상향

구례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하는 노인에게 한 인센티브 지원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한 구례군 노인들은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면허증 반납 6개월 이내 차량을 소유한 이력 있는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구례사랑상품권을,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구례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독려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인 경우 운전면허증과 함께 차량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차량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인센티브 상향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더욱더 독려해 고령자 운전 사고를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희 기자 lit@

강진군, (주)동승과 1000억 원대 투자 협약

2025년까지 용운리 일대 5성급 호텔·골프장 등 조성 150명 고용 창출효과 기대

강진군과 (주)동승파크엔리조트는 최근 대구면 용운리 일대에 고급 호텔과 골프장 조성 등 1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2025년까지 대구면 용운리 일대 약 450만㎡(130만평) 규모에 호텔(300실)과 골프클럽(9홀), 트래킹 코스, 테라피 숲길을 만들어 '강진 웰니스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15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서에는 (주)동승파크엔리조트는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생산물 구매, 지역 기업 이용에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군은 웰니스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각종 행정적 지원에 노력할 것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기업인 (주)동승그룹은 1969년 설립 450여 개 점포가 입점한 동양 최대 규모의 소평물인 동대문 종합시장과 글로벌 브랜드인 JW메리이트 호텔(5성급), 81홀 골프장, 해외 사업(미국 대형 쇼핑몰), 공익사업(장학재단, 공연, 전시장)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견실한 기업이다.

(주)동승파크엔리조트는 지난 2006년 대구면 용운리 일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과 녹차테마파크 조성 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사업지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과 겹치며 진행이 수차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강진원(왼쪽) 강진군수와 김용식(주)동승 사장이 지난 5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투자협약서를 작성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개방함으로써 문화재 훼손 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은 '소규모·고급화 전략'으로 5성급 호텔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웰니스 테마파크에는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고, 호텔 내 수치료(水治療) 시설과 녹차를 주제로 한 명상센터를 만들어 자연과 어우러진 치유의 공간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강진의 자연을 식탁에 옮긴 것 같은 유기농 웰빙푸드 레스토랑, 아름다운 산세 지형을 활용한 펜션나무 숲길, 10km에 달하는 4가지 트래킹 코스, 캠핑 숲 등을 조성

해 감성 관광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식(주)동승파크엔리조트 대표는 "관광 사업은 과거와 달리 대규모 관광단지 중심이 아닌 소규모 고급화로 전환됐다"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고급화 전략으로 대구면 일대를 최고의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8기 비전인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강진은 대거 관광객 유입이 핵심 원동력"이라며 "강진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동승그룹과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71년 역사 장흥고, 스마트형 미래학교 탈바꿈

212억 들여 본관동 새로 지어...선진형 교과교실 시스템 갖춰

71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장흥고등학교가 쾌적한 교육환경과 선진형 교과교실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형 미래학교로 탈바꿈했다.

지난 1951년 문을 연 장흥고는 올해까지 1만 692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전남도 내 우수 고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지역 명문고이다.

장흥고는 최근 총 212억7000만원을 들여 학교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6480㎡ 규모의 본관동 건물을 새로 지었다.

개축한 장흥고의 건물 구조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본관을 중심으로 시설물 간의 동선과 외부로 '열린 뷰'를 확보해 주변 자연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도록 조성됐을 뿐만 아니라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반영 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장흥고는 이와 함께 26억5000만원을 들여 여학생 기숙사인 '제암학사'와 남학생 기숙사 '예양학

사' 2동(21억원)과 체육관(5억원), 도서관 내진 보강(5000만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남녀공학인 장흥고는 장흥을 비롯한 보성, 강진, 영암, 완도 등 중남부권 인문계고교 중심학교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여기에는 장흥고를 지원하는 장학재단의 힘도 한 몫했다. 장흥군인재육성장학재단과 성지장학재단, 안동리장학재단, 두산연강재단, 재경동문회장학재단, (주)제일한방장학재단, 의향장학금, 농림회장학회 등이 인재양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주무현 장흥고 교장은 "본관동 개축 준공을 통해 장흥고가 대학 캠퍼스처럼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했다"며 "지역주민과 동문의 아낌없는 관심으로 과거 도내 인문계 명문고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목포해수청, 추석 대비 항만운영 특별대책 추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추석 연휴 지속적인 항만서비스 제공을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목포항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목포해수청은 이 기간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목포해수청 누리집에 항만운송(관련) 업체 현황을 게시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긴급화물 하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예선업체 및 도선사는 비상 근무조를 운영해 선박 입

출항도 평시와 같이 운영된다고 해수청은 밝혔다.

코로나19 대응반도 24시간 운영한다.

한편 목포해수청은 귀성객들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목포항과 흑산도항 내 여객부두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여항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 긴급보수 등을 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